

2022.8

2022

GLOBAL Edu Finance

일본 편

제 11기 평생학습 분과회에서의
의론 정리 요약

해외 교육재정 분야 현황 조사 개요

구분	내용
국가	일본
분야	평생교육
조사 주제	일본의 최근 평생교육정책 및 현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사회교육을 둘러싼 현황 · 과제 - 앞으로의 평생학습 · 사회교육의 진흥 방책
조사시기	2022.07.
조사기관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조사자	강원대 김보민 연구원
자료출처	문무과학성, 평생학습분과회 119회 '제 11기 평생학습 분과회에서의 의론 정리[안]'

목 차

연번	주요 목차	구성 내용	페이지
1	평생학습 · 사회교육을 둘러싼 현황 · 과제		1
2	앞으로의 평생학습 · 사회교육의 진흥 정책		2

- 인생 100년 시대, Society 5.0의 도래, DX의 급속한 진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 사회가 계속 급속히 변하고 있어, 예측 곤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세대구성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미혼화 · 만혼화(晩婚化), 이것들을 배경으로 한 1인 가구나 독거노인의 증가라는 사회환경의 극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지연 · 혈연이라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유대」는 희박해짐.
-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빈곤 대책, 고독 · 고립대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창생(*지방 상생)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사회적 포섭

- 전 세계적인 기후 변동과 에너지 문제 등과 같은 국제적인 사회적 과제나 국제적인 평화와 질서가 위협받거나,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보다 가까운 문제로써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러한 시대에 평생학습 · 사회교육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며 안심 ·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 사회교육의 현대적인 역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아이들, 외국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젊은이나 고령자 등,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포섭의 실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생학습으로 이어지는 학교 교육,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

- 2020년도부터 순차 실시되고 있는 초 · 중 · 고 · 특별지원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변화가 격한 시대 속에서도,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인생이나 사회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깊게 이해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 · 능력을 익히고, 생애에 걸쳐 능동적으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교육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

지역 커뮤니티에 관한 정책과 평생학습 · 사회교육의 연계

- 교육 분야 이외에도 눈을 돌려보면, 실제로 각 성(省)청(庁)의 정책적 동향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국민의 생활 기반인「지역 커뮤니티」에 주목한 시책 (복지 · 농촌 진흥 · 방재 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시책에서는, 평생학습 · 사회교육과의 연계가 도모되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주체와 평생학습 · 사회교육과의 연계 · 협동이 요구되고 있는 현황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배움의 성과를 지역 과제의 해결이나 마을 조성 등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지닌 인재의 중요성 ·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나, 교육위원회에서 사회교육 행정의 핵심을 담당하는 사회교육주사(主事)의 배치 인원수는 감소 추세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의 중요성

- 코로나19 감염 대책의 일환으로서, 학습 활동에 관련해서도 디지털화·온라인화 방안이 진행된 지역을 볼 수 있었음.
- Web 3.0시대¹⁾의 도래나 그에 수반하는 메타버스²⁾ 등의 발전이 전망되고 있어,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앞으로의 평생학습·사회교육의 모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2 앞으로의 평생학습·사회교육의 진흥 방책

상기와 같은 현황·과제 등에 대응하며, 평생학습·사회교육이 그 역할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이하와 같은 방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공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 기능 강화, 디지털 사회에 대한 대응

- ❑ 공민관 등 사회교육시설의 커뮤니티 거점기능 강화를 목표하는 관점에서는, 평생학습·사회교육의 장으로서만이 아닌, 관련 시설·시책과 협력을 하고, 공민관에 사회교육사의 배치를 하는 것 등이 필요함.
 -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학교나 공민관, 도서관 등의 복합화·집약화, 사회교육 등에서의 학교시설 활용 촉진을 목표하는 것 등도, 지역 커뮤니티 전체의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유효한 방책 중 하나라고 생각됨.
- ❑ 디지털화가 진전되는 사회에서는 실제 모일 수 있는 장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강좌 등의 제공 추진과 함께, 주민끼리 대면할 기회를 갖는 것, 쌍방을 중시하는 것도 중요함.
 - 공민관 등의 사회교육 시설에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이나, 디지털 전원도시(田園都市)³⁾ 국가 구상의 실현에 공헌해 가는 것이 중요함.
- ❑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이나 아이들의 빈곤 등에 대응한 활동의 내실화, 다양성의 포섭이나 다세대 교류의 촉진 등을 계획하기 위해, 사회교육시설에서 학습 기회 제공이나 지도자·지원자 등의 양성·연수 등을 「자급자족주의」에서 탈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2) 사회교육주사, 사회교육사 등 사회교육 인재에 한층 더 활용

- ❑ 사회교육주사는 사회교육행정의 핵심으로서 지역 사회교육 행정의 기획·실시 및 전문적인 조언과 지도에 임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사회교육주사 자격은 사회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유익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이라고 널리 사회교육 관계자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1996년 이후 도도부현·시정촌 교육위원회에 놓인 사회교육주사의 인원은 감소의 길을 걷고 있으며, 2018년 사회교육 조사에서 시정촌의 사회교육 주사 배치율은 50%를 밑돌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 사회교육주사는 「배움의 주최자(organizer)」로서 사회교육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

1) 차세대 인터넷으로서 주목받는 개념. 거대한 플랫폼의 지배를 탈피하고, 분산화된 개인과 개인이 이어진 세계. 전자 메일과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Web1.0, 스마트폰과 SNS에 특징되어 있는 Web2.0에 이어지는 것.

2)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 구축된, 현실 세계와는 다른 3차원의 가상공간 또는 그 서비스.

체인 지역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과제에 따른 관련 부국·단체나 관련 시책과의 연계·조정역으로서 사회교육 주사의 배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 2020년도부터 사회교육주사의 자격취득과 관련된 사회교육주사 강습 또는 사회교육주사 양성과정의 수료자는 사회 다양한 분야의 학습 활동에서도 널리 활용되도록, 사회교육사라고 칭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도부터 2년간 2,000명 이상의 사회교육사가 탄생하고 있음.
 - 2020년도, 2021년도에 사회교육사 칭호를 취득한 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 상황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교육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정비와 민간 기업이나 NPO 직원 등 다양한 사람이 사회교육에 종사할 기회의 확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
- ❑ 사회교육주사·사회교육사가 ICT 기술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한 자질·능력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인 학습 기회의 마련에 대한 방안과 사회교육사의 활동에 관한 우수 사례의 전개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지역과 학교의 연계·협동 추진

- ❑ 커뮤니티 스쿨과 지역학교 협동 활동의 일체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커뮤니티 스쿨이 지역과 함께 있는 학교 구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괴롭힘이나 등교 등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 해결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스쿨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상호 신뢰 관계하에, 전국적으로 도입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커뮤니티 스쿨 도입 촉진과 함께 지역학교 협동 활동 추진원의 상주화를 포함한 배치 촉진·기능 강화, 학교 운영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지원자의 새로운 배치, 보호자, PTA 활동 경험자,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①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협동을 통한 교육 활동의 내실화와 학교에서의 근무방식 개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적인 학교 운영, ② 어린이나 지역 과제에 대응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2022년 2월에 공표된 「교육진화를 위한 개혁 비전」도 근거로 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풍부한 체험 기회 등의 내실화를 계획하기 위해 지역학교 협동 활동 추진원 등을 중심으로 기업 등과 더욱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아이들 자신이 커뮤니티 스쿨이나 지역 학교 협동 활동에 관계함 등을 통해서, 아이들을 주역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함.
 - 특히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에 공헌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일원으로서의 당사자 의식을 갖고 앞으로의 지역을 이끌어 갈 자로서 활약할 것이라 기대함.
- ❑ 상기의 방안을 포함해,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 지원을 포함한 사회교육, 보육 등의 복지,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대해서, 모범사례의 수평적 전개를 계획하여 전국으로 방안이 추진될 것을 요망함.

4) 리커런트 교육의 추진

- ❑ 리커런트 교육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인이

되어서도 학습을 계속하는 데는 배움의 습관 여부의 영향이 매우 큼.

- 리커런트 교육에는, 시대의 요구에 입각해서 직업상 새롭게 요구되는 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리스킬링’, 사회인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스킬 업’ 등을 목적으로 한 리커런트 교육 외, 더 넓은 의미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필요한 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나 교양을 닦거나 성향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거나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학습을 하기 위한 것도 있음.

- 이들의 제공 주체로는 대학과 전문학교 등 교육 기관과 공민관 등의 사회교육 시설, 또한 민간에도 다양한 제공 주체가 존재함.

- 대학 등에서는 교양적인 내용이나 능력 수준의 것 외,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직업상 요구되는 고도의 내용인 리스킬링이나 스킬 업을 위한 것도 제공되고 있지만,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이나 스킬 등을 익히고 더욱 뻗어 나가도록, 예를 들어 ① 대학 등의 리커런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내실화를 계획함과 동시에, ② 지식 습득에는 MOOC⁴⁾와 LMS⁵⁾를 활용함으로써, 대면 수업에서의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등 한층 더 내실화를 계획하거나 ③ 사회인이 좀 더 수강하기 쉬운 시간대·기간·수업 형태 등의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수강자의 부담 경감을 계획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생애의 다양한 상황에서 리커런트 교육을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의 내실화나 정보 발신의 개선뿐 아니라 리커런트 교육을 받기 쉬운 직장 환경 개선과 순환 교육에서 배운 성과가 처우 등에서 적절히 평가되는 경영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경제 산업성과 연계를 추진해야 함.

5) 다양한 장애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추진

- 배우는 것과 일하는 것 등의 활동은 사람들의 유대나 상호 이해의 토양이 되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국가·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을 평생학습·사회교육 추진 시책으로서 명확히 규정한 다음,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을 이끌 인재 육성·확보와 공생 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평생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① 사회교육 시설이나 민간단체의 방안 촉진, ② 대학과 전문학교 등에서의,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공개강좌나 학교 교육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과정」을 통한 이수 증명 제도를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으로, 통신 교육의 활용을 포함한 학습 기회의 확충, ③ 특별 지원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평생학습 의욕 향상을 위한 대책이나 졸업 후 배움의 장의 정비 상황을 고려한 진로 지도의 개선·충실 및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을 근거로 한 개별 교육 지원 계획의 진로처 등의 원활한 인수, ④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한 장애 당사자나 그 지원자에게 장애와 직면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행동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습 기회의 확충, ⑤ 농복(農福, 농업복지) 연계⁶⁾에 의한 농사와 농산물 가공·판매 등에 종사하는 기회의 창출이나 수입 환경의 정비 등, 배움의 장·기회의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6) 국가·지방 공공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

- 국가는 본 분과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진흥 기본계획 등에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과 사회교육 행정이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사회적 포섭 실현과 지역 커뮤니티 구축에 이바지하

는 사회적 기반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진흥방안의 전체상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사회적 포섭 실현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 조성과의 일체적인 추진 역할을 해 나가는 관점에서, 2019년도에 실시한 사회교육법 개정 등에 따른 각 지역의 공민관을 비롯한 사회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실태도 고려하면서, 사회교육시설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사 등 사회교육에 관련된 인재에 관해서도 전술한 대로 제도의 상황을 포함한 검토를 진행시켜 갈 필요가 있음.
- ❑ 문부과학성에서는 관계국과의 연계 추진을 포함한 평생학습·사회교육 진흥체제 강화를 도모해야 함. 또한 총무성에서는 지역 운영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인 운영, 후생노동성에서는 지역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체제 정비, 농림수산업성에서는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농촌 RMO) 형성에 기초한 지역 커뮤니티 기능의 유지·강화 및 농복 연계 등에 관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성(省)청(庁)을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연계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기본방침 (2022년 6월 7일 각의결정)에서는,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은, 시장이나 경쟁에 전부 맡기지 말고, 관(官)과 민(民)이 협동하고 성장과 분배의 좋은 순환을 낳으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다. 지방의 사회과제를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닌, 성장의 엔진으로 전환해간다. 또한, 관이 실마리가 되어, 민간의 투자를 모아, 관민연계에서 사회과제를 해결하고, 강하게 성장한다. 다양한 사회과제에 직면하는 지방에야말로, 텔레워크나 원격교육·원격의료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니즈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의해, 지역의 개성을 살리면서 지방의 사회과제 해결, 매력 향상 돌파를 실현하고, 지방활성화를 가속한다」라고 되어있다.

4) 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 의 약칭

5)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약칭.

6) 장애인 등이 농림수산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나 삶의 보람을 갖고 사회 참가를 실현해가는 방안. 법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이 연계해서 추진.

출처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index.htm>

文部科学省, 生涯学習分科会 (第119回) 「第11期生涯学習分科会における議論の整理 (案)」 https://www.mext.go.jp/content/220630-mxt_syogai03-000023652_1.pdf